

[보도자료] 쿠팡, 중기중앙회 홈앤쇼핑과 상생협력 MOU 체결 “중소기업 지원 위한 물류 협력 추진”

2024. 10. 17.



쿠팡, 중소기업중앙회, 홈앤쇼핑이 중소기업 상생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문재수 홈앤쇼핑 대표이사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2024. 10. 17. 서울 - 쿠팡이 중소기업중앙회, 홈앤쇼핑과 손잡고 판로 개척과 배송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

쿠팡, 중기중앙회, 홈앤쇼핑은 오늘(17일) 중소기업 상생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 문재수 홈앤쇼핑 대표이사가 참석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판로 확대를 위한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중기중앙회와 홈앤쇼핑은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해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 쿠팡은 이들 중소기업이 실제 성장할 수 있도록 쿠팡의 로켓배송 물류망을 이용한 빠른 배송을 지원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들이 좋은 상품을 만들고도 판로 개척과 배송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홈앤쇼핑에서 발굴한 우수 중소기업 제품에 쿠팡의 로켓배송이 적용된다면 중소기업의 판매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다양한 협력사업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는 “쿠팡의 인프라가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성장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쿠팡은 유관기관과의 다양한 협업으로 중소기업의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생 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문재수 홈앤쇼핑 대표이사도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의 물류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는 다양한 배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쿠팡과 중기중앙회는 22년부터 ‘일사천리(중소기업 판로지원 프로그램)’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300여개사를 대상으로 쿠팡 ‘착한상점’ 입점을 지원하고, 쿠팡 물류센터에 중소기업을 초청하여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상생협력 사업을 함께 해오고 있다.

착한상점은 쿠팡이 전국 중소기업 및 농수축산인들의 디지털 판로 개척을 위해 선보인 상설기획관이다. 2022년 8월 착한상점을 론칭한 지 2년 만에 입점 중소기업 누적 매출이 1조원을 돌파하는 등 상생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